하나님을 뵈도 죄, 못 뵈도 죄

(잠언 25:1~28)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뵈도 죄, 못 뵈도 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을 뵈도 죄, 못 뵈도 죄'
하나님을 뵈도 죄가 되고 못 뵈도 죄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좋으신'이라는 수식어의 '좋음'은 판단기준에 따라서 내포하는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이 세상과 묶여있는 판단기준일 때에는 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느낀다면 하나님을 뵈도 죄, 못 뵈도 죄가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반대말은 나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쁘신 존재가 되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데우스 압스콘디투스(Deus Absconditus)로 '숨겨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읽은 글을 예로 들어봅니다.
목사님 부부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려운 목회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어여쁜 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부부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대부분 황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도 그랬는데 이것이 오래되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정신박약아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황달을 너무 오래 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아이에게 온전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유는 개척교회 때문이었습니다.

이 글에서 사모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한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보자면 이 말이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일을 주시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부부는 아이를 안고 밤을 새워 기도하였지만 아이는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찾아오던 성도들조차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저주를 받아서 딸아이가 바보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소문 때문에 교회를 져버릴 사람이라면 애초에 성도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상황은 그렇게 진전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부부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서 좋으신 하나님이 종적을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좋으신’이라는 수식어의 의미가 세상과 연관된 판단기준이라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에서는 죄 사함 받아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됩니다. 일을 시작했으면 성공적으로 부흥해야하고, 어디를 가든 경쟁이 있는 곳이면 일등을 하고자 합니다. 어렵사리 취직을 한 사람이라면 승진을 해야 합니다. 이왕 공부를 한다면 일류대학을 나와야 하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좋으신’이라는 수식어의 판단기준입니다.

이러한 수식어를 하나님께 붙인다면 이 기준에 벗어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서 종적을 감추시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든 숨겨진 하나님이든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어긋나는 나쁜 일들이 생겨나면 ‘좋으신 하나님이 숨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숨기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숨기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숨기신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마음이 불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보거나 못 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서 숨기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의아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는 솔로몬의 수많은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취사선택하여 편집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29장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2절을 보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차별점이 밝히 드러날 때에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과 하나님이 만날 때에 하나님이 일등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 차별은 흔히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영원하심 등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도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만나는 일을 알기 원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가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정신박약아가 되었음을 알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목사님 부부에게는 숨겨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부부에게 숨기셨고 목사님 부부는 이 일에 대해서 몰라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숨기시는 것은 단순히 사건 자체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인간에게는 가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올바른 판단과 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상황에서 만나는 세상일에 대해 나는 올바른 판단과 참 의미를 몰라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몰라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드러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을 내 멋대로의 판단기준으로 부르는 사람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해서 깨닫습니다. 승진하고 자녀가 일류대학에 들어가고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보인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때 보이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나에 의해서 피조 된 가짜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한 좋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참 하나님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선악과를 두신 의도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는 구절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 판단이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에 하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으

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눈을 찔러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셈입니다.
창세기 3장 4~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것을 눈이 밝아져 보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판단은 봄과 관련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숨기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들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가 본문에서 말하는 일이 숨겨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본다’라는 말은 곧 내가 만나는 일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판단한 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딸의 황달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정신박약아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고쳐달라고 금식하고 철야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판단이 개입되자 하나님과 나의 차별점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차별되셔야만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며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겪게 될 모든 문제들의 진실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며, 그것이 왕 자신에게조차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로움을 드리는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무지함을 전제하고 인정할 때에만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오셔서 마음을 채우시고 그 결과로 기쁨과 만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숨겨진 일들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고 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중에 ‘좋으신 하나님’을 불러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진 판단기준에 의해 나쁜 일이 벌어지면 좋으신 하나님은 종적을 감추어 버리고 숨겨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고, 내가 내 눈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가 정신박약아가 된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의지가 있고 판단이 작동할 때에는 죄가 생겨나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죄도 짓지 않습니다. 이 딸로 말미암아 목사님 부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고, 목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그래야만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예를 통해 살펴봅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에 교계의 원로목사님들이 다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임박한 목사님을 앞에 두고 이들은 목사님께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러자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마지못해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총회장을 비롯한 교계의 원로들에게 해야 했던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예수를 잘 믿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솔로몬으로 말하자면 날마다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천 번씩 죽어야 되는 이유는 세상과 묶여있는 좋음에 대한 판단기준 때문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지 십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교인이 열 명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이 상태를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숨기셨습니다. 다만 목사들이 스스로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목회 성장학 같은 이상한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부흥한다는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성도가 천 명, 만 명이 되어야 좋은 것으로 가르치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판단으로는 열 명 목회는 마지못해하는 목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년이 지났는데 왜 열 명 밖에는 오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이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왜 열 명 밖에는 안 될까요? 목사님의 목회현장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고 설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 등을 사랑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내동댕이쳤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숨기심 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젖혀두고 스스로 판단하여 왜곡된 하나님을 알아 버립니다. 이건 안 된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좋으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목회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가 큽니다.

2절 하반부에서 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 하늘의 높

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살피다'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판단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바른 왕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대한 판단을 일천 번씩 번제단이나 십자가에서 죽이는 자들입니다.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라는 말에서 왕의 영화스러움은 백성들이 열 개의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에 왕은 천 개, 만 개의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참 의미와 올바른 판단은 하나님께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왕의 일이고 직업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정책을 얘기하면 바로 TV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헤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왕은 밤을 새워서 하나님의 숨겨 놓으신 뜻과 판단을 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 의미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측근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일에 숨겨진 하나님의 판단과 이해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내가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그 일이 숨겨져 있음을 알고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기준으로 좋음에 대한 판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는 나의 마음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묶여있는 좋음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좋은 분이 아닙니다. 이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유일한 기쁨과 만족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숨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겨진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의 판단이 임하고 숨겨졌던 비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하는 판단은 잘못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좋음의 기준이 세상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못 보는 것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해도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겨우 보는 확률정도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좋은 일은 생깁니다. 내가 창조한 가짜 하나님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일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딸이 정신박약아가 된 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숨겨져 있습니다. 그 딸을 앞에 두고 부부의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의미를 깨달

을 수 있게 되고 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에 목사님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참 성도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숨기심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